

제주 2공항 도민경청회 쟁점 이목 집중

29일 성산읍지역 시작 내달까지 총 3회 예정 용역진 사업 설명·항공수요 예측 등 쟁점될듯 ‘일방추진’ 논란 국토부 의견 반영 수위도 주목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를 관련해 일고 있는 여러 논란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해 도민사회에서 팽팽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찬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전달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기 위한 첫번째 도민경청회를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경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부 협의가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이와 관련해 항공기와 조류

의 충돌 위험성 평가 부분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항공수요에 대한 예측의 불명확성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 검토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나 공유주차없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도는 도민경청회를 통해 제2공항

에 대한 찬반 의견 모두를 아울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해 가깝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차에 이어 2·3차 도민경청회는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4월 24일 제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9일부터 5월 8일까지 도,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도 공영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문인관공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나설때

심각한 기후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9년 전세계 121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됐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보다 훨씬 앞선 2012년에 CFI2030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 경 문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력제어에 따른 사업자의 불만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갈등도 꾸준히 양산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의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열에너지는 수온이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순환시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와 호수, 해수 등을 수열에너지원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열에너지가 공급, 가동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하수열을 활용해 여름에는 실내의 높은 열을 외부로 배출하고, 겨울에는 지하수로부터 열을 흡수해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세종청사 등 공공분야에 설치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 용천수의 수열, 그리고 4면의 바다를 활용한 해수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원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한 바 있다.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8.3%로(21년말 기준), 전국 평균(7.5%)의 2.4배로 전국 최고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CFI2030 목표대비 62.5%로 계획에 미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의 출력제어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은 104회, 올해에는 3월 중순까지 30회가 발생했다. 또 태양광 발전도 2021년부터 출력제어가 발생해 2022년 28회, 2023년 3월까지 3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CFI2030 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CFI2030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제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빈번 청정에너지원 다변화 통해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유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균형위·산업부, 27일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머리 맞대

정부가 17 시도와 함께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수립에 본격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14개 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국토·교육 등 중앙정부 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

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제주TP는 지난 24일 엠베서더 서울폴만호텔에서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비롯해 전자기 연관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LG 에너지솔루션, 현대 글로벌비스, 한화 컨버전스,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와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TP 제공

제주도의회, 강경흠 징계 ‘원포인트’ 임시회

29일 제414회 임시회 개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하루 일정으로 제41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주시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강경흠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

서를 접수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

안건 중 징계에 관한 회의는 제주시도의회 회의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결과는 공개회의에서 선포하게 된다.

징계가 의결되면 강경흠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공개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葬

제주관광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님께서 2023년 3월 27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3년 3월 30일(목요일)
- 발인일시 및 발인장소 : 2023년 3월 31일(금요일) 07:00, 부민장례식장 2층 분향실
- 영 결 식 : 2023년 3월 31일(금요일) 06:00, 부민장례식장 2층 분향실
- 장 지 : 양지공원

- 장례집행위원회 : - 상임고문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고 문 : 주봉채, 민명원, 이남조, 최경달
- 위 원 장 : 강인철
- 위 원 : 양광순, 고철원, 강옥선, 김병섭, 고승철, 박만혜, 강동훈, 하승우, 고금환, 하시구찌가스미, 김길철, 민경춘, 정양훈, 문영기, 오봉헌, 홍종훈, 장지명, 강영일, 왕학조, 양세원, 박주연, 김광경, 박지혜, 노 철, 변애생, 한상훈, 박호형, 이승아, 부용석

- 가 족 : - 미망인 한혜선(010-9491-1696), 아들 부민호(010-6435-1696), 부민서(010-4004-1696)

2023년 3월 27일

故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장례집행위원회 위원장 강인철